노른자위땅 공장 내줘야하는 삼표… 대체부지 '골머리'

SAMPYO

풍납토성·서울숲 복원에 부지 필요
송파구, 544억주고 소유권 이전
보상금 산정 절차 의문, 생존대책도

서울 성수동에 있는 삼표의 레미콘 공장 전경.

서울 노른자땅에 레미콘 공장을 보유하고 있던 삼표가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서울밖으로 내몰릴 위기다.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공장은 풍납토성 복원 때문에,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공장은 서울숲 추가 조성 때문에 각각 공장부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다.

그럼에도 레미콘 산업의 생명인 대체부지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레미콘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1시간~1시간 반 정도의 거리가 공급 반경임을 감안할 때 기존 영업권을 지키기 위해선 '인(in) 서울'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 때문에 서울안에, 또는 서울과 최단거리내에 레미콘 공장터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의 레미콘공장들은 삼표의 풍납동공장, 성수동공장, 그리고 천마콘크리트의 세곡동공장(강남구), 신일씨엠의 장지동공장(송파구) 등이 있다.

대형레미콘사인 삼표가 4개 공장 중 절반을, 그것도 가장 요지에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해왔다.

삼표 풍납공장의 경우 1일 생산량은 3000루베(1루베=1㎥), 성수공장은 이보다 2배 많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삼표는 이같은 지리적 장점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도 상당한 물량의 레미콘을 공급키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5층 규모로 지어질 GBC는 연면적이 91만㎡로 80만㎡였던 제2롯데월드보다 규모가 크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GBC는 40여 만대 정도가 동원됐던 제2롯데월드보다 많은 50만대 이상의 레미콘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 있는 삼표의 2개 레미콘 공장이 모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앞서 이달 초 송파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서울시지토위)에서 삼표산업의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지토위에서 산정한 공장 보상금 544억원을 주고 소유권을 삼표에서 송파구로 이전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초 송파구가 책정한 보상액 540억원보다 0.8%가량 늘어난 액수라는 점도 덧붙였다.

앞서 삼표의 풍납공장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발굴되면서 풍납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2006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삼표는 공장 이전 등을 비롯해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하지만 풍납공장에 종사하고 있는 레미콘차주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상금 산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비대위, 구청과 추가 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풍납공장에는 현재 70~80대의 레미콘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레미콘차주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다.

성수공장도 오는 2022년 6월까지 공장 이전을 끝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삼표 성수공장의 땅주인인 현대제철과 레미콘 공장 이전을 합의했다. 성수공장 부지는 현대제철이 소유한 2만2924㎡와 국공유지 5032㎡로 구성돼 있다. 삼표산업은 그동안 현대제철 땅을 빌려 레미콘공장을 운영해왔다. 서울시는 문을 닫게 될 성수공장터에 공원시설을 조성해 서울숲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문을 닫고 이전해야 할 삼표가 대체부지를 알아봐야하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삼표가 이들 공장문을 닫고 새로운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도 활동 반경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기존 영업권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화그룹, 국악부터 영화작업까지 재능나눔

한화그룹이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예술재능 기부 봉사활동인 '한화예술더하기 재능나눔 Arts Plus'(이하 '재능나눔 아트 플러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재능나눔 아트 플러스는 한화그룹과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창의예술교육 지원 사업인 '한화예술더하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문 예술강사들과 함께 올 한해 동안 배운 문화예술 재능을 이웃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이다. 학생 및 전문 예술강사, 한화그룹 임직원 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여하며, 지역주민과 복지기관 이용자 등 약 6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협력 복지기관 및 학교, 문화예술회관 등 전국 30여 곳에서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재능나눔 아트 플러스 프로그램 참가 학생과 한화그룹 사회봉사단 임직원이 희귀난치성질환 아동들과 함께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고 있다.

참가자들은 가야금 연주, 국악&힙합 퓨전콘서트, 창극 등의 공연 발표를 비롯해 캘리그라피, 사진스튜디오, 영화 시나리오 작업 등 체험프로그램 진행과 디지털 미디어, 셀프 퍼블리싱(독립출판) 관련 전시회도 개최한다. /양성운 기자

SK실트론, 6억달러 수출의 탑 수상

SK실트론이 수출액 6억달러를 돌파한 공을 인정받았다.

SK실트론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6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SK실트론은 지난해 약 1조5000억원 매출 중 절반을 해외에서 거두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 투자를 통해 수출을 확대 중이며, 3분기에는 지역별로 중국 19%, 미국과 대만 각 9%, 기타 14% 등으로 수출 증대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인텔과 마이크론, TSMC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 업체를 포함하고 있다. 실리콘 웨이퍼를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듀폰의 웨이퍼 사업을 인수하는 등 연구 개발과 투자를 지속해 시장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SK실트론은 6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SK실트론 관계자는 "앞으로도 SK실트론은 반도체 제조기업간 협력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고객과의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강력 퍼포먼스는 기본… 럭셔리한 외관

YG의 카톡 car talk

더 뉴 아우디 A6

지난달 판매 1000대 넘기며 상위권
8세대 완전 변경 모델, 두 가지 라인
전장·전폭, 경쟁차량 중 가장 넓어

더 뉴 아우디 A6 45 TFSI 콰트로 주행 모습.

올 하반기 국내 수입 세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8세대 아우디 A6의 매력을 정리하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아우디 A6를 기다려온 소비자들의 갈증을 충분히 해결해 줄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매력을 바탕으로 신형 아우디 A6는 국내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새롭게 출시된 더 뉴 아우디 A6는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경쟁 모델인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수입차 판매에서도 1000대를 넘기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더 뉴 아우디 A6의 시승을 통해 차량의 매력을 분석했다. 시승 구간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를 경유해 돌아오는 약 100㎞에서 진행했다.

신형 아우디 A6는 8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A6 45 TFSI 콰트로', 'A6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 두 가지 라인으로 나왔다. 신형 A6 차체 크기는 전장 4950㎜, 전폭 1885㎜, 전고 1460㎜에 휠베이스(축간거리) 2924㎜로 기존 세대보다 전장과 전폭, 휠베이스가 모두 늘어나 넓은 실내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전장과 전폭은 경쟁차량(E클래스·5시리즈) 중 가장 길고 넓다.

국내에 판매하는 신형 A6 모든 트림에는 'S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기본 적용했다. 전면 그릴이 더 커졌고, 범퍼와 디퓨저 등도 더 역동적인 모습을 갖췄다.

실내는 다양한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운전자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디지털 계기판을 비롯해 대시보드 중앙 공조장치 하단 위아래 2개의 디스플레이가 자리했다. 터치 방식에 햅틱 기능을 접목해 누를 때마다 운전자에 피드백을 전달해 준다. 특히 공조장치는 스마트폰 앱 위치를 이동하는 것처럼 운전자의 스타일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주행 성능은 뛰어났다. A6는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TFSI) 엔진 및 7단 S 트로닉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최고출력 252마력, 최대토크 37.7kg·m를 발휘한다. 아우디 고유의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인 콰트로를 적용했으며 제로백은 6.3초로 민첩하다. 고속 구간에서의 가속은 경쾌했다. 특히 아우디 고유의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인 콰트로는 네 바퀴에 고르게 힘을 전달해줘 커브에서도 쏠림 없이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풍절음 등 소음은 물론 노면 진동도 느껴지지 않았다. 기존 4스포크 방식에서 3스포크로 바뀐 스티어링 휠은 도심 주행에서 편안한 주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더 뉴 아우디 A6 45 TFSI 콰트로 실내 모습.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하차경고 시스템과 교차로 보조 시스템 등이 적용된 '프리센스 360' 등 최첨단 안전 사양을 적용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배려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시간 360도 카메라는 주차나 좁은 골목길 주행에 부담을 최소화 해준다.

가격 경쟁력도 충분해 보인다. 신형 A6 가격은 45 TFSI 콰트로 6679만7000원,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 7072만4000원이다. 경쟁 모델인 벤츠 E 300 4MATIC(7970만~8060만원), BMW 530i xDrive(7470만~8030만원)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

/양성운 기자 ysw@